

여의도가 품은 붉은 여의주, 파크원(Parcl)

伊 거장 리처드 로저스 설계...한국 전통 건축양식 모티브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여의도 파크원(Parcl)은 모두 4개 건물로 이뤄진 최고 높이 318m의 초거대 마천루다. 오피스타워 2동은 각각 69층, 53층이며, 그 사이에 백화점과 호텔이 자리 잡고 있다. 오는 7월 준공되면 서울에서는 두 번째, 여의도에서는 가장 높은 랜드마크 빌딩이 된다.

파크원은 규모만큼이나 독특한 디자인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파크원을 설계한 리처드 로저스는 이탈리아가 낳은 세계적 명성의 건축가다. 파리의蓬피두센터, 런던 그리니치 반도의 밀레니엄 돔 등이 그의 작품이다. 모더니즘과 기능주의적 디자인의 하이테크 건축으로 유명하다. 1991년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 작위(Sir)를 받은 데 이어 2007년에는 건축가로서 최고의 영예인 프리츠키(Pritzker)상을 수상했다.

그는 한국전통 건축물의 기둥 형상을 담아내기 위해 철 구조물인 모서리 기둥을 건물 외부에 그대로 노출했다.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철골조는 건물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마감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그의 이런 시도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외부로 드러낸 철골조의 색상은 전통 목조 건축물의 '단청'을 활용했다. 그는 단청의 다섯 가지 색 가운데 적색을 파크원의 외관 철골조 기둥에 적용했다. 한국전통의 아름다움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파크원의 외관은 이렇게 태어났다.

붉은 색상은 한강의 푸른빛과 여의도공원의 사계의 변화를 조화롭게 담아내며, 자연과 도시에 아름다움과 품격을 더해 주고 있다. 여의도의 단조로운 회색빛 빌딩 숲에 강렬하고 미래지향적인 파크원의 존재는 정치·금융의 중심지 여의도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내부시설도 한국적 미학과 자연의 숨결이 깃들여 있다. 현대백화점이 들어서는 상업시설의 내부 천장을 한국전통의 방패연으로 형상화했다. 천장 전체를 유리로 마감해 자연채광을 극대화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에서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 파크원을 방문하는 일반인들과 임차인들이 건물 내에서도 신선한 활력을 얻고 미적 만족감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오피스동 로비에 자연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대나무 패널을 활용할 계획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파크원은 리처드 로저스의 디자인 철학을 기반으로 도시, 사람,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자 한국전통의 멋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건축물”이라며 “파크원이라는 붉은 여의주를 품게 된 만큼 정치·경제의 중심지로 대변되는 여의도에 희망과 활력이 넘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